

전국 공무원에게 보내는 서신

안녕하십니까?

2003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의식에서부터 사회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모두가 잘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우수하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훨씬 더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국회의원과 장관 시절부터 밤을 지새며 맡겨진 과제를 끝내 해내고야 마는 여러분을 보아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믿음과 애정이 더욱 커졌음은 물론입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큼니다.

이제 희망찬 새해가 밝아 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국정운영의 목표와 실천전략

을 세우는 한 해였다면, 내년부터는 가시적인 결실을 하나하나 거두어 가야 하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국가혁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말빠르게 변화하면서 대한민국을 한단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두 배로 늘리고 비효율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절반으로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혁신의 목표입니다.

정부부터 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는 '일 잘하는 정부'에서 시작됩니다. 국민들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먼저 변화해서 맡겨진 사명을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겠습니까.

정책의 결과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절차에 따라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 행정'을 펼쳐 가야 하겠습니까.

다음으로 '대화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국민을 향해 눈과 귀를 열어 놓아야 합니다. 국민의 불편과 아픔을 제 일처럼 여기며 어떻게 풀어 갈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널리 알리고 설득하는 노력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심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그 어떤 꿈도 국민과 우리들이 힘을 합치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신 있게 나아갑시다. 다가오는 갑신년, 역동적이고 활기찬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장단을 조율하며 흥을 돋우는 농악대의 상쇠처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